



잠자던 성주의 문화유산 세상 밖으로 나오다

성주 성산동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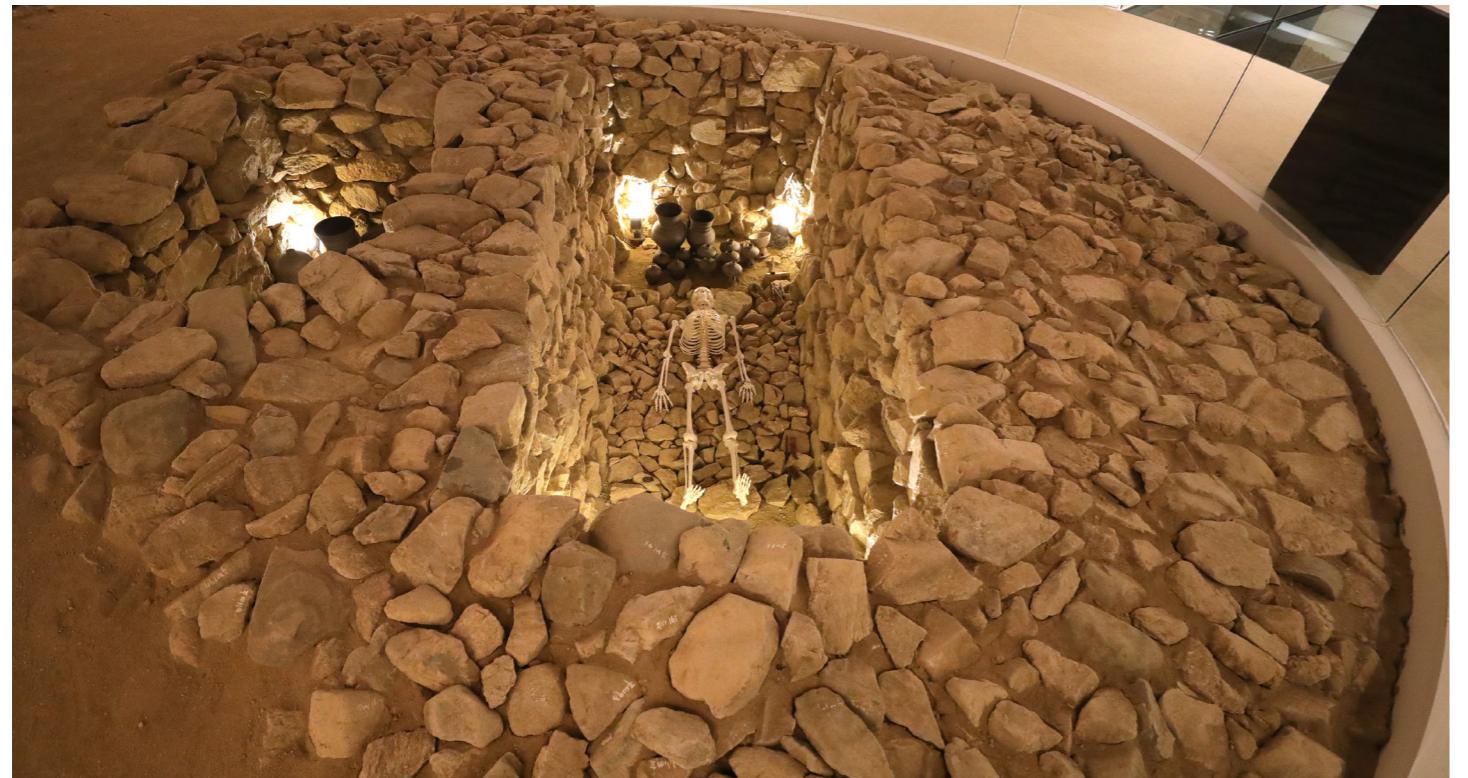
가야 고분의 조사·연구 성과는 가야 각국의 성장 과정과 문화발전, 삼국과의 교류, 특히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교류를 밝혀줄 기본 자료가 된다. 성주 성산동 고분 역시 당시의 성산가야 역사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글 박영민 기자 사진 조종원 기자(항공 사진 허준 기자)

성산동 고분군은 성주가 성산가야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역사의 흔적이다.
사진은 성산동 고분군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성산동 고분군과 전시관 밖에 조성된 야외전시장의 전시물.



전시관 내부에 이전 복원된 별티유적 1호분의 무덤 내부 모습. 무덤 구조와 유물들을 현장감 있게 관람할 수 있다.

철기시대에 형성된 소국을 모체로 해 성주에는 6가야의 하나인 성산가야가 형성되게 된다. 성산가야에 대한 기록으로는 삼국유사 오가야 조에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성산가야가 씨족공동체적인 성격을 띠는 각각의 ‘읍락(邑落)’과 정치·경제의 중심지적 구실을 하던 ‘국읍(國邑)’, 그리고 ‘소도(蘇塗)’라는 별읍으로 구성됐으며 관료조직이 존재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성산가야의 국읍 지는 성산동 고분군이 위치하는 성주읍 일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성산동 고분군이 성주군 내에서는 다른 지역 고분군들보다 규모 면에서 가장 월등하고 부장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읍락 지는 각 고분군이 있는 지역일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의 면단위 지역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주 성산동 고분군은 성산(해발 389.2m)의 북쪽 경사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성주지역 최대의 고분군으로 5~6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것은 321기지만, 파괴돼 없어졌거나 봉토가 깨여나간 고분을 포함하면 그 수는 수백 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963년 사적 제86호로 지정된 성산동 고분군은 1918년에 일본인 하마다와 우메하라에 의해 제1·2·6호분이,

1920년에 야스이에 의해 성산동 대분·팔도분 등이 발굴됐다. 그리고 1986년 대구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했다.

발굴조사 결과 고분군은 크게 막돌이나 깬돌을 이용해 석실의 네 벽을 축조한 할석식 석실분과 석실의 네 벽을 넓적하고 길쭉한 판석을 세워 만든 판석식 석실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매장 주체가 묻히는 주곽과 부장품을 묻는 부곽을 갖춘 다곽묘로 돼 있고, 주곽의 석실은 크기에 비해 유물이 빈약하고 부곽에는 넘칠 정도로 많은 유물을 부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토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부곽의 한 귀퉁이가 빙자리로 남아 있어 순장자가 매장돼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제1호분은 구릉의 능선 말단부에 있는 원분으로 봉토는 높이 3.6m, 지름 13.6m이다. 매장시설은 할석으로 쌓은 장방형 석실이며 장축은 동서 방향이다. 석실은 길이 3.6m, 너비 1.3m, 높이 1.6m이다. 동쪽 벽을 제외한 세 벽은 정연하게 쌓여 있으므로 동쪽 벽을 입구로 한 구동계 앞트기식 석실 무덤인 것 같다. 석실의 바닥에는 돌덩이를 2, 3단 쌓은 뒤 그 위에 작은 할석을 깔았으며, 천장은 큰 판석형 돌 4매를 가로로 걸쳤다. 석실의 내부에는 동쪽에서부터 토기류와 쇠도끼, 은제 관장식과 금제 귀걸이, 은제 허리띠, 고리자루칼의 순으로 놓여 있



성산가야의 토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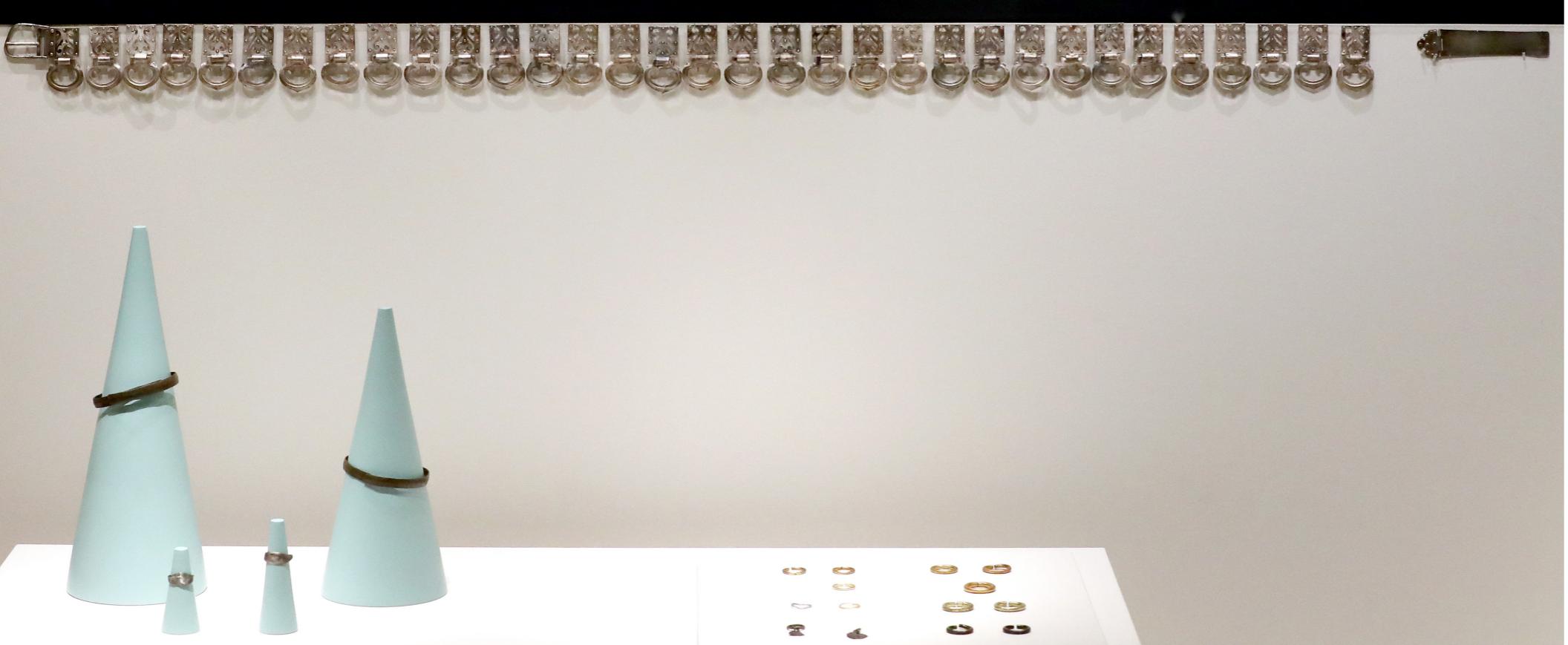
4세기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암리 금동관.

고, 서쪽 벽의 주위에는 토기류가 부장되어 있었다. 유물의 배치 및 두개골의 출토 위치로 보면 동쪽으로 머리를 둔 것 같다. 그 밖에 석실의 사방에서 창·준·화살촉·화살통의 부속구로 보이는 은 제품, 곱은 옥형 금구와 동환(銅環)이 출토됐다.

제2호분은 제1호분의 바로 위쪽에 있는 원분으로, 봉토는 높이 6m, 지름 27m이다. 매장시설은 구덩식 석실이고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3.4m, 너비 1.7m, 높이 1.6m이며, 바닥에 할석을 3, 4별 깔았다. 석실 주위에는 돌무지 시설이 있었다. 석실의 동쪽 벽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 제1 부속 돌덧널이, 이보다 약간 높은 곳에 제2 부속 돌덧널이 있었다. 유품 석실은 도굴을 당해 출토유물이 빈약한 편이나 남쪽 벽과 북쪽 벽 일대에서 토기류가 많이 출토됐다. 그 밖에 유품

석실 내부에서 관 뜻, 손칼, 창, 도끼, 화살통 장식, 철제 은장환두 등이 출토됐다.

제6호분은 제2호분보다 높은 곳에 있으며, 봉분은 높이 3m, 지름 약 9m이다. 석실의 장축은 남북 방향이며, 규모는 길이 3m, 너비 90cm, 높이 1.8m이다. 석실의 바닥은 주먹 크기의 돌을 깔아놓은 뒤 그 위에 자갈돌을 2, 3별 깔았다. 석실 내부는 도굴을 당해 출토유물이 빈약한 편으로, 북쪽 벽의 일대에서 토기류와 철기류가 약간 출토됐다. 그중에는 조개가 담겨있는 굽다리접시가 있었다. 성산동대분은 같은 크기의 석실 2기가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해 나란히 축조됐다. 서쪽에 있는 석실이 유품덧널이며 동쪽의 것은 팔린덧널이다. 유품덧널의 규모는 길이 4m, 너비 1.5m, 높이 1.5m이다. 팔린덧널에는 약 300여 점의 토기만이 부장돼 있었다. 팔도분은



삼국시대 하리띠는 가죽이나 섬유로 된 띠 위에 금속의 띠꾸미개를 덧대어 만들어졌다. 가죽이나 천으로 된 띠는 부식됐지만 띠꾸미개와 띠고리 등 장식만이 무덤 주인의 부와 권력을 알려준다.



당시 지배계층이 사용했던 말 안장을 비롯한 말갓춤을 재현해 놓은 조형물.

뚜껑 있는 굽다리 접시.

긴목항아리와 원통모형 그릇받침.

'豆' 모양 토기.

길이 2.85m, 너비 89cm, 높이 1.04m의 굴식석실 무덤이다. 석실의 긴 벽에 붙여 널 받침을 설치했다.

1986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져 성주지역 중심고분군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주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1·2·3호 등 차례로 고분의 호수가 부여됐으며 나머지 봉토분들은 북쪽 경사면 일대에 분포해 있었다.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된 고분은 북쪽 경사면에 축조된 봉토분으로 38·39·57·58·59호분 등 모두 5기이다. 5기의 고분 모두 원형의 봉토 안에 규모가 큰 유품덧널이 가운데 자리 잡고, 소규모의 팔린덧널이 덧붙여진 주부곽식이다. 58호분의 경우 다른 고분과는 달리 경사면 위쪽에 둘레돌(護石)을 쌓아놓았고 유품덧널의 뚜껑 돌 중앙으로부터 방사상으로 뻗어 나가는 석열을 10줄 쌓아놓았다. 봉토의 외곽을 미리 정하고 봉분을 보다 견고하게 축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고분들은 모두 깬돌만으로 돌덧널을 축조하고 큰 판석으로 뚜껑돌을 덮었는데 석벽 뒤에 보강적석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돌덧널을 잘 지탱하도록 했다. 팔린덧



성산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칼자루 끝에 부착되는 각종 장식(맨위)과 청동검(가운데), 철검(아래).



4~6세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살촉.



두 귀 달린 향아리.

넓에는 빈 곳이 없을 정도로 토기류 중심의 많은 유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순장(殉葬)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성산동 고분의 팔린덧널들은 순장과 유물부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기의 고분에서 1000여 점에 가까운 토기가 출토돼 다른 고분에 비해 토기부장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고분의 규모에 비해 관모류를 비롯한 장신구류, 갑옷과 투구류, 장식큰칼류 및 금속용기나 기타 금공품류는 거의 출토되지 않아 빈약한 편에 속한다. 또한 무덤의 주인공이 안치된 유품덧널에 유물이 빈약한 점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금공품류로서는 특별한 유물 없이 철제에 금동장이나 은장한 고기 꼬리 모양 말띠드리개와 심장 모양 말띠드리개를 비롯한 마구류 약간과 금제 굵은고리 귀고리 등이 출토된 정도이다.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토기의 경우 상하고호투창의 뚜껑 굽다리접시와 굽다리목 긴향아리로 보아 ‘낙동강동안양식토기’의 전형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5세기 후반경 성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한눈에 닮는 옛 성주의 발자취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형태를 본뜬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건물은 생명 문화의 종착점인 ‘사’와 시작점인 ‘생’이 공존 및 순환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사적 제



성산동 1호분(현재 56호분)에서 출토된 '동근 고리 큰 칼'. 이는 이 고분의 주인이 최고 지배층임을 보여준다.

86호로 지정된 성주 성산동 고분군을 보전하고 성주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됐다. 성주 성산동 고분전시관은 안팎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고분군 출토유물과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실과 야외전시장,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관한 수장 시설은 물론 어린이 체험실, 가족쉼터, 다목적 강당, 카페 등 체험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상설전시실은 크게 4개 분야로 기획됐다. 도입부에 해당하는 '성산동 고분군 이전 성주'는 성산동 고분군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의 성주를 알아보는 전시로 성주의 선사시대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성산가야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성산동 고분군 발굴사'에서는 성산동 고분군 분포지도와 성산동 고분군 발굴의 과정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았다. 고분군의 규모와 분포 범위, 발굴된 고분의 위치 등은 물론 발굴 조사된 각 고분의 특징과 대표



바다고둥. 내륙지역인 성주에서 출토돼 당시 해상교역이 이뤄졌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금제 귀걸이. 금으로 만든 고리형태의 귀걸이로 4~6세기경 귀족들이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야외전시장

전시관 남쪽에 펼쳐진 야외전시장에는 범수사 절터 배례석, 보월리 절터 주춧돌, 동자석인, 우물 등과 함께 성주 성산동 고분군 하위 세력의 무덤인 장학리 별티유적과 차동골유적 일부가 이전 복원돼 있다. 전시관 내부의 제1호 분과 함께 야외전시장에는 2호분과 3호분이 이전 복원되어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구덩식 돌덧널 무덤인 3호분과 그 이후 시기에 나타난 앞트기식 석실 무덤인 2호분을 통해 별티유적에서 6세기까지 지속해서 고분이 만들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차동골 4호분. 협평-김천 고속국도 건설로 인한 성주 차동골유적 발굴조사에서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성주고분군 야외전시장으로 이전 복원했다.

다양한 유형의 돌방무덤이 확인되는 차동골유적은 성산가야 말기 고분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야외전시장에는 1~7호분, 30호 석실 등 총 8기의 차동골 유구가 이전 복원되어 있다. 3호분에서는 굴식석실 무덤의 특징인 무덤길(무덤 밖에서 석실로 이어지는 길)의 천장돌이 확인되고, 30호 석실에서는 기와로 만든 배수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 구덩식 돌덧널 무덤으로 별티유적 무덤 중 가장 잘 다듬어진 돌을 사용해 벽을 쌓은 것이 특징인 장학리 별티 3호분.



농경사회가 발달한 성산가야시대에 사용했던 낫.